“절은 작아도 봉사는 큰맘으로”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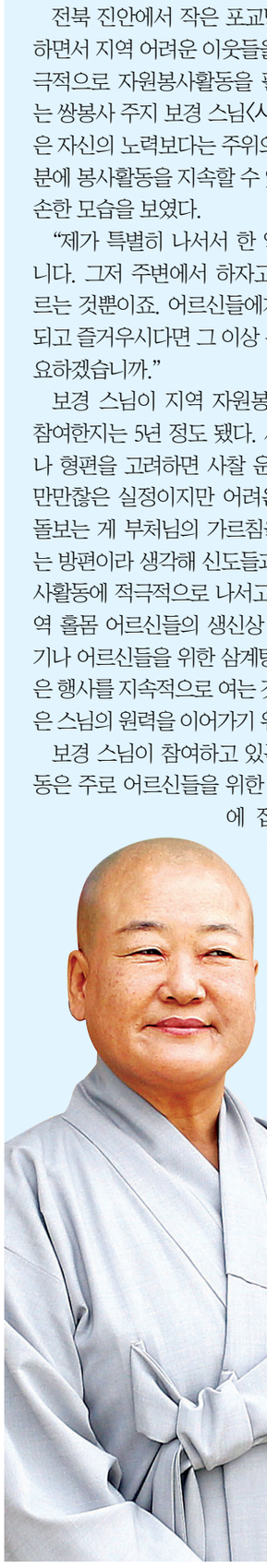
“제가 사는 곳이 산골이다보니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작은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사진〉. 스님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주위의 도움 덕분에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제가 특별히 나서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하자고 하니 따르는 것뿐이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우시다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보경 스님이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지는 5년 정도 됐다. 사찰 규모나 형편을 고려하면 사찰 운영하기도 만만찮은 실정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편이라 생각해 신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홀몸 어르신들의 생신상 차려드리기나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여는 것도 이 같은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보경 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실천에 집중돼 있다. 쌍봉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가 높아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유독 겨울이 길다. 그래서 스님은 어르신들의 난방 지원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농촌 특성상 젊은이들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편이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고, 일정한 수입 없이 노인연금이나 기초생활연금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 형편을 고려해 보경 스님은 20여 명의 쌍봉사 불자들로 구성된 ‘섬김 봉사단’을 결성,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겨울이 닥치기 전인 10월부터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쌀도 한 포대씩 전달하고 있다.

“제가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겨울나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사 등 지역 사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연계하는 나눔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 합니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진안지역 김장나누기 행사에도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털목도리도 준비하고 있다.

쌍봉사는 규모가 큰 사찰이 아니다. 보경 스님이 2004년 주지로 부임해 주변 논 150평을 매입하고, 토지 용도변경을 거쳐 현재의 인법당을 10년만인 2013년 준공했다.

“아직은 사찰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찰을 여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며 함께 나아가는 게 더 큰 가치라 생각합니다.”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불사를 준비 중이다.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끼니를 해결하면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홀로 외로움을 타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게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복지시설 같은 개념의 공간이 아닌 그저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나름대로 배려할 계획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연간 활동상 ‘한눈에’

광주불교聯, 4차 정기총회

활동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연간 활동보고서와 자료집을 발간 · 배포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1월 6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를 결산하는 〈2016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와 〈2016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날 발간한 활동보고서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성도재일연합법회, 신도회 출범, 빛고을관등회 사진전 등 연간 주요사업과 운영위원회 회의일지, 봉축기획단, 전통등기획단, 연희기획단, 사진문화기획단 등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을 70여 페이지에 담았다. 특히 기존에 광주불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전통등 만들기와 연희단의 진행과정을 담은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년 전 시작했던 전통등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전통등기획단의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올해 첫 선을 보인 사찰연희단 구성 및 율동리더, 전체율동 보급을 진행한 연희기획단의 역할과 평가 등은 앞으로 광주불교계 각종 사업에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주불교연합회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다른 지역 사암연합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회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의 네팔행복자전거 지원사업과 대외협력사업, 불교단체 지원사업 등 대외적인 복지사업 또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연합회원들은 〈2016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이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역동적인 모습과 준비과정 등을 자세히 수록해 “자료집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30여 회원 사찰이 참여한 정기총회는 빛고을콰이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1년간 활동영상 △감사패 전달 △인사말 △안건심의가 진행됐다.

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회원사찰 스님들의 도움과 운영위원들의 노력으로 광주불교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앞서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미륵사 주지 혜법 스님과 김정효 前 총무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윤장대 조성불사 회향

11월 6일, 8개월 불사 거쳐

2018년까지 미륵대재 봉행도

지장신앙과 미륵신앙 도량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은 11월 6일 윤장대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도솔암 마애불 옆에 조성된 도솔암 윤장대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발원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8개월의 불사기간을 거쳐 이날 회향했다.

미륵33대재에 이어 봉행된 윤장대 조성불사회향법회에는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 재무 수찬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넣은 책장을 돌리는 윤장대는 〈석문정통〉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하나 글을 알지 못하고 경전을 읽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전해진다.



윤장대 불사 회향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이 윤장대를 돌리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성본 스님은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윤장대를 돌리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기도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도솔암 윤장대는 불자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고 불교가 일반인에 다가가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도솔암의 새로운 성보문화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도솔암은 마애불앞에서 선망부모 영가 천도와 학업, 사업성취, 병마 극복의 서원을 발원하는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도솔암 미륵대재는 매월 음력 7일 봉행되며, 오는 2018년까지 미륵33재 기도정진이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한처럼 수행을”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2일 오백나한전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 의식에 이어 영산회 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이 진행됐다.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당연히 많은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만한 분으로 칭송받는다”며 “불자는 누구나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나한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심사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보고 기상 닮은 아이들의 문예세상

장보고아카데미, 청소년백일장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는 11월 2일 경내에서 부설기관인 (사)장보고아카데미 주최로 ‘제10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섬과 바다, 해조류’란 시제로 그림 · 산문 · 시 부분 경연을 실시,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 전남라도의장상, 전라남도교육감상)을 비롯해 우수상 36명, 장려상 26명 등을 시상했다.

행사를 준비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백일장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좋은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보고아카데미는 1999년 설립돼 문화 ·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해외유적답사, 템플스테이, 백일장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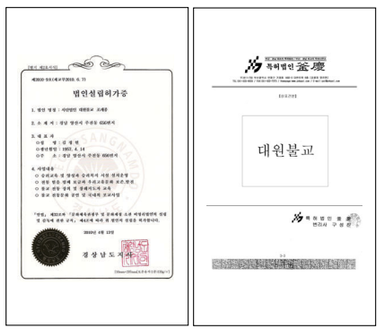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문도회회장 석법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문도회총무 석해안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 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 강의
010-3711-5072
▷ 수시접수가능 ◁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